

# 수도권지역 사교육 산업의 성장과정과 공간적 변화: 교육공간의 분포와 교육정책, 교육수요와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박 소 현\* · 이 금 숙\*\*

##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도권지역 사교육 산업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사교육 관련 교육정책이 기존의 사교육 완전 금지 시기에서 벗어나 사교육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게 되는 1990년대 초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사교육 산업의 성장과정을 교육정책, 교육수요,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특히, 사교육 관련 정책과 사교육 수요를 토대로 급속히 성장해온 사교육 산업이 수도권지역 교육공간의 형성과 재구조화에 끼친 영향과 그 특징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사교육 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 변화와 사교육 수요, 공교육 및 사교육 환경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검증하였다. 사교육 산업의 성장에서 나타나는 공간상의 변화는 사교육의 보편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도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수료(sohyunpk5@hanmail.net)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교신저자(kslee@sungshin.ac.kr)

권의 일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사교육 산업의 집적화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사교육 공급의 다양화, 세분화 추세에 따라 사교육 수요의 공간적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의 문제 접근과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지역성에 기초한 교육공간의 구조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사교육 산업, 교육정책, 교육수요, 교육환경, 공간적 집중

## 1. 서론

정규 학교 수업 외에 주중 방과 후나 주말 동안 개별적으로 별도의 추가교육을 받기 위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밀도가 높아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뿐만 아니라 중동, 북미 및 유럽,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현상은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적 배경 및 그 사회의 사회·경제 문화적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고 학벌이 중시되어 온 우리나라는 비교적 일찍부터 사교육이 발달하여 왔으나 현재처럼 과잉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가구 당 소득수준의 상승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고조 등은 사교육의 빠른 성장세를 가져왔다. 한국은행의 ‘2010년 가계 금융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와 학교 등록금을 합한 교육비 지출이 가계 생계비 가운데 28.4%를 차지해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비에 막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2.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부담이 문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부모세대들의 저축 및 노후 준비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sup>1)</sup>, 결과적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게 되는 주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관련 업종의 확대와 관련 종사자수의 증가를 가져와 이제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간주될 만큼 확장되었으며 가계경제는 물론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

1) 대한상공회의소(2005)가 서울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4.9%가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로 30~40대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녀 사교육비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하게 되었다(박소현·이금숙, 2011).

우리나라 사교육 산업의 성장은 일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입지하게 되면서 특정지역이 갖는 사교육 환경이 거주지 선택과 집값 상승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지역 간 사회격차를 조장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예컨대 자녀교육에 극성스런 강남지역의 엄마들을 지칭하는 ‘강남엄마’와 같은 신조어가 생성되기도 하였고 이들의 자녀교육 비법을 담은 사교육 관련 책들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실정이며 ‘강남엄마’를 집중 조명한 공중파 방송드라마는 큰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이처럼 특정지역에 대한 사교육 시설의 집중은 교육기회 혹은 지역과 계층 간의 격차 등을 초래하며 큰 관심과 우려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사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교육·사회학과 경영·경제학, 그리고 지역연구 및 지리학 분야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사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크게 사교육(비)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한 연구(최상근 외, 2003; 양정호, 2005; 유한구, 2006; 김양분·양수경, 2011; 오만숙·김진희, 2011), 사교육(비)의 원인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과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내지는 사교육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뤄왔다(Mischo and Haag, 2002; Bray and Kwok, 2003; Ireson, 2004; Davies, 2004; Tansel and Bircan, 2006; 김진영, 2008; 이인자 외, 2011; 황규성, 2013). 또한, 사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로 교육정책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거나 각 시기별로 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이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손충기, 2003; 강창동, 2007; 이종재·장효민, 2008; 강일국, 2010; Byun, 2010; 이수정, 2011)들이 다수 존재한다. 사교육시장의 규모가 커지자 산업적 측면에서 사교육의 특성을 분석하려는 작업도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사교육 관련 특정산업의 구조 및 현황을 밝히고 발전전략을 제시해주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춰 왔다(천세영, 1997; Aurini, 2004; Aurini and Davies, 2004; 김미숙 외, 2006; 홍진환 외, 2009; Dierkes, 2010; Kwok, 2010). 최근에는 주거지 선택과 주택가격 결정에 있어 교육환경이 주요한 변수로 거론되자 교육환경과 주택가격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Downes and Zabel, 2002; 최열·권연화, 2004; 진영남·손재영, 2005; 엄근용 외, 2006; 김경민·이양원, 2007; 이정국·김주한, 2007; Clapp et al, 2008).

이처럼 사교육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논의, 발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공간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sup>2)</sup>. 사교

육 연구에서 공간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매우 드물고, 공간적 측면에서 시기별로 사교육의 성장과정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사교육의 수요와 공급은 공간을 바탕으로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동을 초래한다. 이는 사교육 공간의 형성과 재구조화를 발생시키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 공간의 형성과 재편 현상은 지난 20여 년간 세계경제의 변화와 함께 교육정책의 변화 및 공교육부문의 양적·질적 변화,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사교육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 산업의 성장과정에서 교육정책과 교육수요의 변화와 함께 교육공간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은 교육공간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교육정책의 개선방향 등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데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사교육의 수요와 공급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포함 수도권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사교육의 주요 참여연령층인 중·고교생, 사교육의 대표적 공급형태인 사설학원을 중심으로 사교육 산업의 성장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정부의 사교육 관련 교육정책이 사교육 완전 금지에서 벗어나 사교육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게 되는 1990년대부터 사교육은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급속도로 성장해왔으므로 지난 20여 년을 분석의 주요 시간적 범위로 두고 각 시기별 사교육 산업의 성장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상의 변화와 특징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 2. 한국 사교육 산업의 성장과정 및 추이

### 1) 한국 사교육 산업의 성장과정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 초등교육이 의무화되면서부터다. 정부수립 이후 초등교육의 확대 정책에 의해 초등학교 취학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

2) 사교육 시설의 분포 패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한 연구(주경식·김경숙, 2004; 박소현·이금숙, 2011; 김형미·주경식, 2011)들이 소수 존재하며, 공간의 사회적 측면에서 강남지역의 교육적 성격과 의미를 분석한 연구(손준중, 2004)와 학교(전학)선택의 공간성에 관한 연구(이화정 외, 2013)가 있을 뿐이다.

였고 이는 막대한 중학교 진학 수요를 낳아 중학교를 치열한 입시경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입시경쟁에서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중학교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추진된 것이 1968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이다. 그러나 중학교 교육의 급격한 팽창은 곧바로 고등학교 진학단계의 극심한 병목현상을 일으켰고 과열 입시경쟁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가게 되자 정부는 1973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른다(윤정일, 1997).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을 폐지하면 입시과열로 인한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사실상 입시경쟁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각종 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입시경쟁에 따른 과열 과외문제가 지속되자 정부는 1980년 과외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강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외는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1989년 과외금지 완화 조치에 따라 강제적으로 금지되었던 사교육이 1990년대 들어 부분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고, 2000년 과외금지 정책이 위헌으로 판결되면서부터는 법적으로도 사교육을 금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 사교육은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교육 형태인 ‘(사설)학원’이란 명칭은 1984년 「사설강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1989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칭되면서 ‘학원’이란 용어를 법적인 용어로 대체하였다. 시대별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원의 설립 추세도 변화해왔는데 1968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실시되고 대학입학 예비고사 제도가 도입되면서는 인문계열의 학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1973년 고교평준화 정책의 추진은 대입 관련 입시학원의 급증을 초래하였다. 과열 입시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과외비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1980년 과외금지 조치를 취한 뒤 재학생의 학원수강을 금지하였는데 입시학원 인가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문계열의 학원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87년 입시학원의 설립 완화와 함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방학 중 재학생의 학원수강이 허용되었고 1989년 과외금지 완화 조치에 따라 입시 관련 학원은 더욱 급증하였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 과외 전면 허용 및 2001년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사설학원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 2) 한국 사교육 산업의 성장추이

교육서비스 산업은 공교육서비스와 사교육서비스로 구성된다. 공교육서비스를 제외한 사교육서비스 산업의 성장 추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공급측면으로 사교육서비스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및 사설학원 수, 사설학원 수강자수 등의 규모 변화 및 증감 추이를 보았고 사교육의 수요측면으로 초·중·고교 학생 수의 변화 및 증감 추이를 보았다. 연구 자료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조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사용하였다<sup>3)</sup>.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에서 공교육서비스를 제외한 사교육서비스는 제6, 7차 개정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 소분류 되었으나 점차 개정되어 2000년 제8차 개정에서 ‘기타 교육기관’으로, 2007년 제9차 개정에서 ‘일반교습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소분류 되어왔다[표 1].

[표 1] 교육서비스업 중 사교육서비스업의 분류 체계

대·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일반 교습 학원	일반교과학원
			외국어학원
			방문교육학원
			온라인교육학원
			기타일반교습학원
	기타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교육기관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예술학원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교육지원 서비스업	교육지원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기타 교육기관	그 외 기타교육기관	운전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자료: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3)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체조사 자료는 2000년부터 데이터베이스화 제공되기 때문에 2000년 이전의 분석 작업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고, 2000년부터는 두 기관 자료를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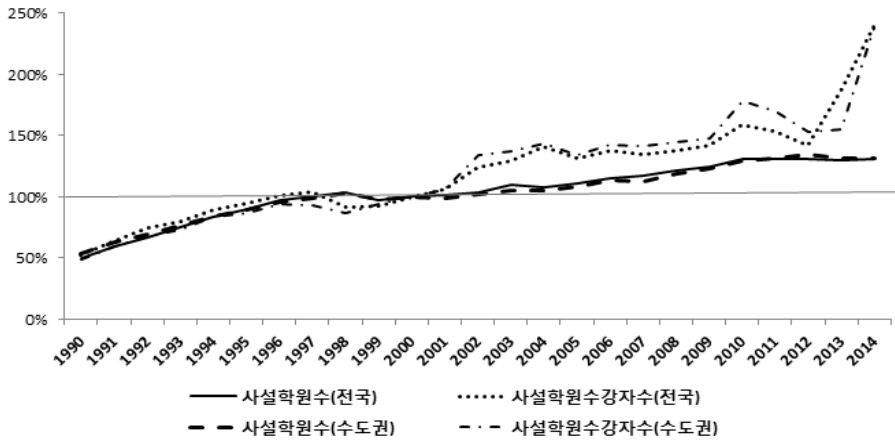
특히 제6, 7차 산업분류에서 ‘일반강습소’로 세세분류에 포함되어 있었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일반 교과과정 및 외국어 교육과 관련되는 분류가 점차 승격 및 통합되면서 제 8차 개정에서는 ‘일반교습학원’으로 세분류되었고 제9차 개정에서는 소분류로 승격되면서 포함하는 세세분류도 더욱 세분화되거나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 산업분류에 있어 세세분류에서 세분류, 세분류에서 소분류 등으로 승격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산업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199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교육서비스의 성장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교육의 공급형태 중 가장 일반적이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설학원을 중심으로 연도별 성장 추이를 분석하였다<sup>4)</sup>. [그림 1]은 전국 및 수도권지역의 사설학원 수 및 수강자수의 연도별 성장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로 사교육이 전면 허용되는 2000년을 기준년도(100%)로 놓고 이전과 이후의 증감률 추이를 보았다. 지난 24년간에 걸쳐 전국 및 수도권지역의 사설학원 수 및 사설학원 수강자수는 IMF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전국 및 수도권지역의 사설학원 수는 2000년 대비 각각 31.2%, 31.7%의 증가율을 보였고, 수강자 수는 각각 140.5%, 138.0%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0년대 초반, 과외 금지 위헌 판결과 외환위기 이후 경제상황이 차츰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사설학원 수강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전국에 비해 수도권지역 학원 수강자수 증가율이 보다 현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까지 이어져 왔다. 2004~2005년 학원 수강자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4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종합대책’의 일환으로 EBS 인터넷강의에서 수능문제의 일부를 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 학원교습시간의 단축,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 등 교육정책의 영향으로 2010~2012년 수강자수가 급감하였으나 2013년부터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수능영어의 절대평가제 전환, 2017년도 대입제도 개편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4)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의 총 사교육비 규모는 1990년대 이후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해 1994년 약 5조 8천억 원(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3년 약 18조 6천억 원(통계청)에 이르렀다. 2013년 기준 통계청의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나타났고 그중 일반교과에 대한 사교육 참여율은 57.1%이며 일반교과 유형별 사교육 참여로는 학원수강이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사설학원과 사설학원 수강자수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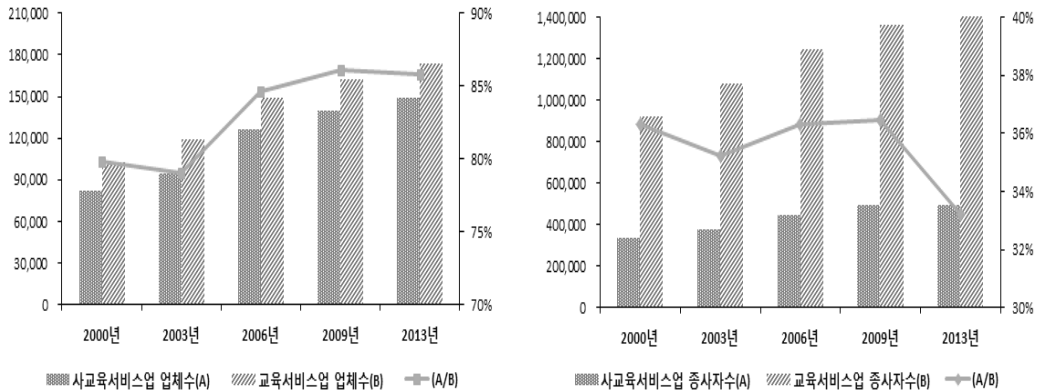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다음으로 [그림 2]는 2000년 이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에서 공교육 서비스를 제외한 사교육서비스업의 규모 변화 및 구성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13년간 교육서비스업에서 공교육서비스를 제외한 사교육서비스업의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사업체수의 비중은 2000년 79.8%에서 2006년 84.6%,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증가하여 86.1%를 차지하였으며, 2013년 기준 148,810개로 교육서비스업 사업체 가운데 무려 8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서비스업에서 사교육서비스업 종사자수의 구성비는 2000년 36.3%에서 2003년 35.3%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06년 36.3%, 2009년 36.5%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2013년 기준 495,486명으로 3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지난 13년간 교육서비스업 내에서 사교육서비스업의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여 사업체수, 종사자수 모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에 비해 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만큼 소규모의 영세 사교육업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사교육서비스업의 규모 변화 및 구성비 추이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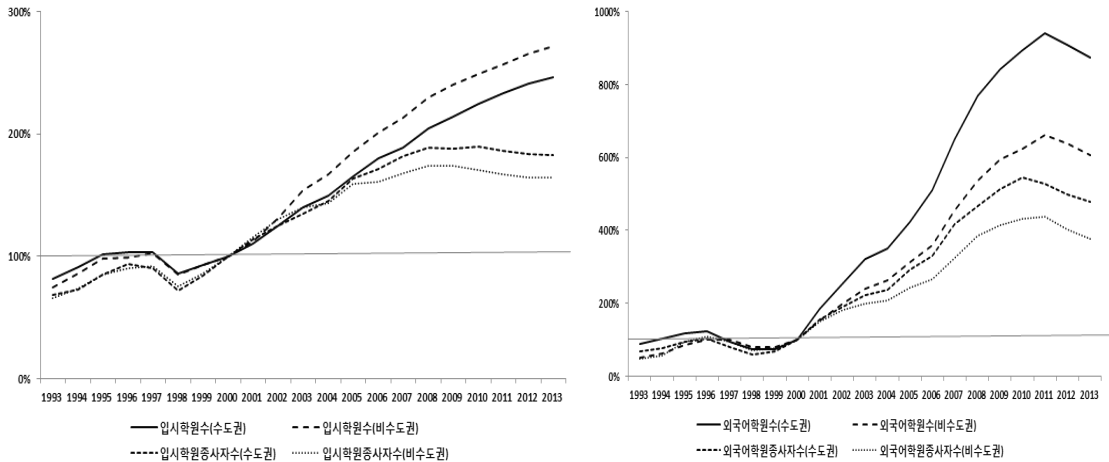
전체 사설학원 수 및 사설학원 수강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학원 유형별로 보면 그 결과는 상이하다. 학교 교과목과 관련되는 입시 및 보습, 외국어와 관련되는 국제화 학원의 성장세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학원들은 둔화 또는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박소현·이금숙, 2011).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고 정부의 사교육 관련 교육정책과도 밀접한 학원 유형인 일반입시학원과 외국어학원을 대상으로 연도별 성장 추이를 분석하였다[그림 3]<sup>5)</sup>.

[그림 1]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로 사교육이 전면 허용되는 2000년을 기준년도(100%)로 놓고 이전과 이후의 증감률 추이를 보았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지역의 일반입시학원 수 및 관련 종사자수의 증감률 추이를 보면 IMF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3년 현재 수도권 및 비수도권지역의 일반입시학원 수는 기준년도인 2000년에 비하여 각각 146.7%, 17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종사자수도 각각 83.0%, 6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학원은 외환위기, 초등학교 영어교과 채택,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의 영어몰입교육 등 영어 사교육 열풍에 힘입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수도권지역의 외국어학원 및 관련 종사자수는 기준년도인 2000년 대비 2013년에 각각 774.5%, 37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지역도 각각 507.2%, 27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입시학원 수

5)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청 자료의 '일반입시학원' 항목은 2006년부터 '일반교과학원'과 '기타일반교습학원'으로 세분화되었고, '언어학원'은 '외국어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는 비수도권지역이 수도권지역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관련 종사자수는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지역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외국어학원은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지역보다 학원업체 수 및 종사자수 모두에서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림 3] 일반입시학원과 외국어학원 사업체 및 종사자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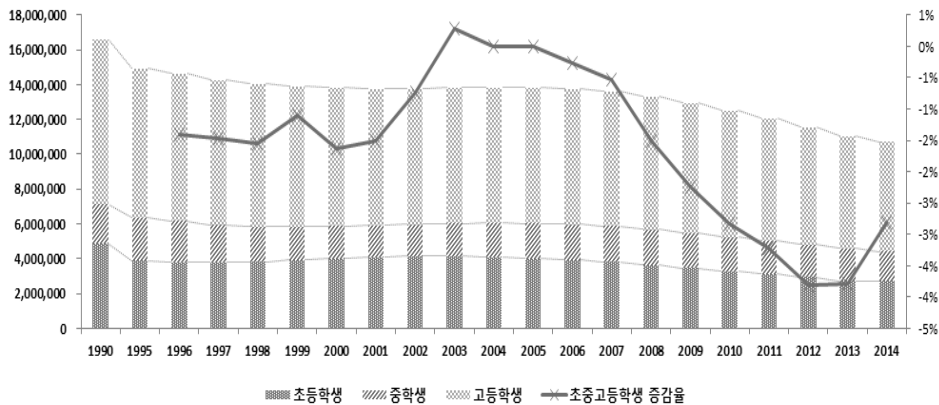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업체조사

사교육서비스의 공급측면이 빠르게 성장해온 데 반해 사교육의 주요수요층을 구성하는 초·중·고등학생수의 추이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4]는 우리나라 사교육 수요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1990년부터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난 24년간 -33.2%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초등학생 수는 1990~1997년에 감소한 후 1998년부터 다시 증가하다 2003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2014년 기준 약 27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 수도 2006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4년 기준 약 171만 명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수는 1997~2004년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2005년부터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다시 2010년부터 감소하여 2014년 기준 약 18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교육 수요층을 구성하는 초·중·고교 학생 수는 감소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서비스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및 사설학원과 사설학원 수강자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가 곧 사교육의 참여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교육열, 교육정책의 빈번한 변화로 인한 과열된 입시 경쟁구조 등이 우리나라 사교육 수요의 매우 빠른 증가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초·중·고등학생 규모 변화 및 증감률 추이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3. 수도권지역 사교육 산업의 성장과정과 공간적 변화

본 연구는 사교육에 대한 교육·정책적 논의를 위해서는 ‘사설학원’이라는 이름으로 급속히 성장해온 사교육을 산업 측면에서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사교육 산업의 성장과정과 공간적 변화를 연결시켜 분석하기로 하였다. 사교육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지역)적 분포 패턴의 변화는 GIS를 활용하여 시각화하였다.

#### 1) 사교육 관련 교육정책

1990년대 사교육 관련 교육정책은 기존의 사교육 완전 금지 시기에서 벗어나 사교육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유지해 교육격차의 완

화를 추구하면서 초·중·고교생의 방학 중 학원수강 허용(1991년), 학기 중에도 학원수강 허용(1995년), 대학원생의 초·중등학생에 대한 과외교습 허용(1996년) 등 사교육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당시 불법 고액과외의 성행이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시되자 정부는 1997년도에 불법과외 대책 마련을 위해 교내 과외교습 및 수준별 이동수업과 위성교육방송 등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 초반(1982년~1993년)까지의 대입시험은 객관식 위주로 구성된 학력고사 체제로 각 대학은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였고, 고교평준화 정책의 일환으로 거주지 중심 배정의 학군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1978~1981년)에 따라 도심의 많은 고등학교와 대형 입시학원들이 4대문 밖으로 이전되었는데 이때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들의 대거 강남 이전으로 서초·강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강남 8학군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학군 내 고교 배정제도로 인해 강남지역 학생들만 강남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되자 강남으로 이전된 명문 고등학교로의 입학에 위한 위장전입이 줄을 잇는 등 우수한 공교육 환경을 쫓아 청소년층은 강남지역으로 유입하였다<sup>6)</sup>. 반면, 대형입시학원들은 도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용산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으로 다수 이전하였다. 이 시기의 동작구 노량진동은 대성학원, 중앙학원 등이 이전해오면서 고교 단과반과 재수생들을 위한 새로운 입시학원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입시·보습학원들이 대입관련 사교육을 주도하게 되면서 현재의 노량진 학원가는 대입관련 입시학원보다는 각종 국가공인시험관련 학원들이 밀집분포하고 있다.

학력고사 체제를 전면 개편한 새 대입제도인 대학수학능력평가는 1994년도부터 시행되었다. 객관식, 암기주입식 위주의 학력고사와 달리 통합 논술형, 범교과적 출제 형태인 수능평가는 질적, 양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본고사 전면폐지(1997년), 새로운 출제 형식에 대한 공교육 기관의 적응지체, 학생들의 학습 부담감은 곧 사교육 수요의 급증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사교육 산업이 폭발적으로 급성장하는 계기를

6) 강남개발과 함께 1976년 경기도가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하였고 이어 휘문고, 서울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등이 차례로 강남으로 이전하였다(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1980년 완전학군제 도입을 기준으로 15-19세 인구 중 고등학교 재학생수의 변화를 보면, 강남구는 10,486명('75) → 29,208명('80) → 45,025명('85)으로 10년간 무려 329.4%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종로구는 19,406명('75) → 23,105명('80) → 16,395명('85)으로 10년간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인구총조사).

가져왔다.

2000년대의 사교육 관련 교육정책은 사교육의 부분적 보완 수정을 넘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자는 방안으로 전환되었다. 2000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따라 과외, 학원교육이 전면 허용되면서 이제는 사교육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교육정책 어젠다를 ‘과열과외 해소’에서 ‘사교육비 경감’으로 전환하는 등 사교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긍정성을 인정하고 사교육을 합리화, 다양화하고자 하였다(이종재·장효민, 2008).

한편, 대학수학능력평가는 도입 초기의 찬사와 달리 문제 유형의 정형화 및 난이도 조절 실패에 따른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졌다. 예컨대 2001년도 수능평가는 이른바 ‘물수능’이라고 불렸던 반면, 2002년도 수능평가는 ‘불수능’이라고 불릴 만큼 어렵게 출제되자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고조되었고 사교육 수요는 더욱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7)</sup>.

2000년대 후반 교육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입시제도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다.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도입하였으며 2010년도부터 새로운 학군제로 광역학군제(고교선택제)를 실시하여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였다. 또한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개별적, 전문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였다. 획일적인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입학사정관제(현, 학생부종합전형)는 2008년 첫 시행된 이후 시행대학과 선발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기추천전형, 특성화인재전형, 지역사회 파트너십전형 등 각 대학들이 저마다 특색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내세우다보니 에세이, 면접, 포트폴리오 등 맞춤형 대입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2008년 서울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으로 야간 심야교습(밤 10시까지)을 제한하였는데 타 지역에 비해 유난히 단속이 심했던 강남지역은 일시적으로 학원수강생이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sup>8)</sup>.

7) 2001학년도 수학능력평가는 만점자가 66명이 나와 이른바 ‘물수능’ 논란이 확산된 반면, 2002학년도 수능은 ‘불수능’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워 수능평균성적이 전년도보다 66.8점이나 떨어져 학력저하 논란이 일기도 했다(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8)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2008)에 의하면 강남구의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의 초·중·고교생 수강자 수는 46,187명으로 전년도에 집계된 118,523명보다 25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로 박근혜 정부 교육공약의 일환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들 수 있다. 2013년도에 시범 실시된 이후 2016년까지 전국 중학교에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14년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실무(현장)중심의 인재양성을 위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 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자사고 폐지 논란, 수능영어의 절대평가제 전환 등 교육정책의 변화는 사교육 산업의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표 2] 시대별 주요 (사)교육 관련 정책

	(사)교육 관련 정책
1990년대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행(1994년) 대학원생 초·중등학생에 대한 과외교습 허용(1996) 과외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대책 발표, 위성교육방송 실시(1997)
2000년대	과외교육 전면 허용(2000년),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제 실시(2001) 사교육비 경감종합대책 발표(2004년),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 발표(2007)
2010년대	광역학군제(고교선택제) 실시(2010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2013년),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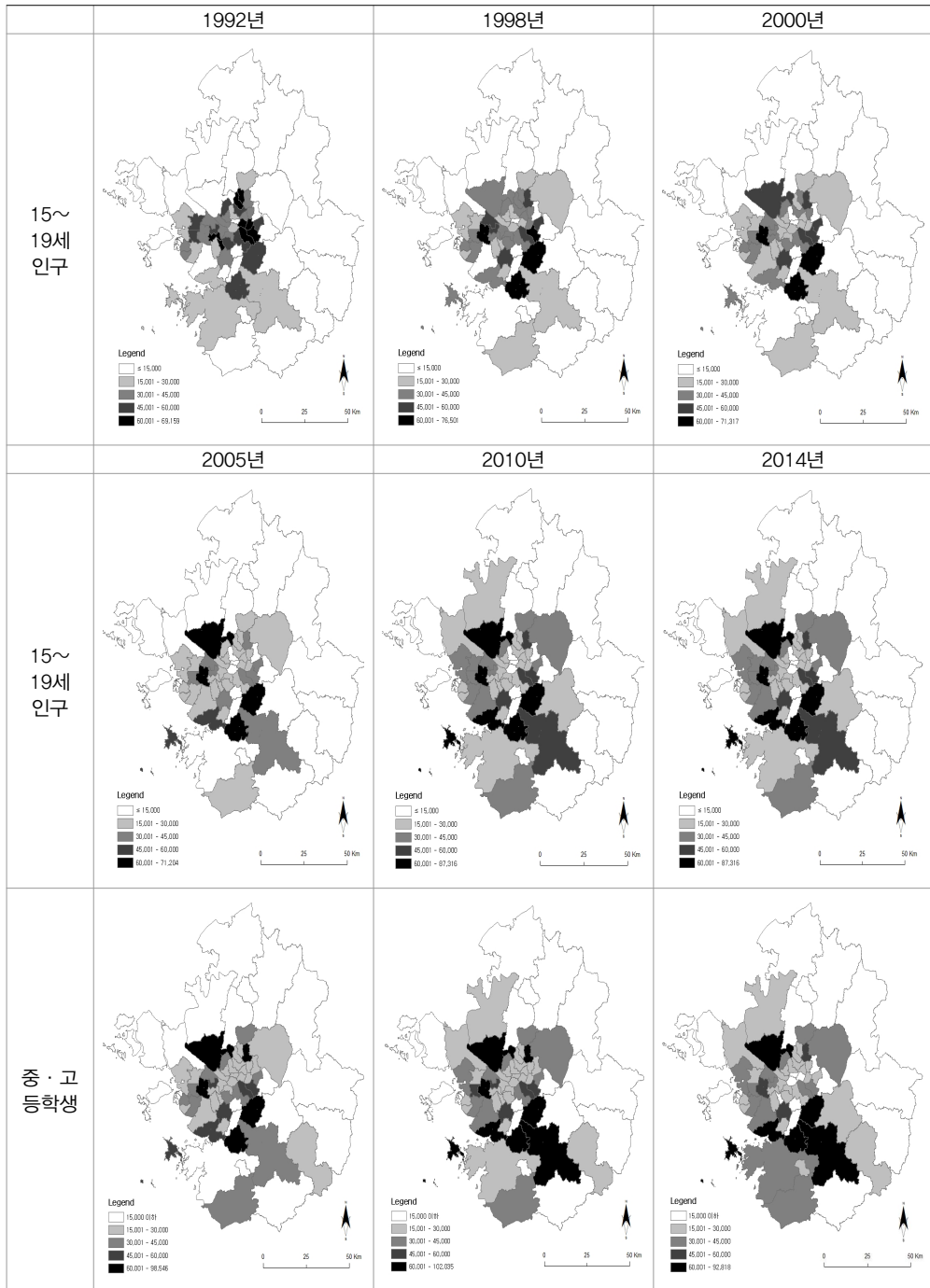
## 2) 사교육 수요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지역 사교육 수요층의 지역별 분포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사교육 수요의 주요 연령층에 해당하는 15~19세의 주민등록상 거주인구 분포와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지역별 분포 추이를 함께 보았다(그림 5)<sup>9)</sup>.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5~19세 인구는 1992년 약 188만 명에서 2002년 약 150만 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약 163만 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1992년의 경우 강남구, 송파구 및 분구되기 이전의 구로구, 강북구, 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분포를 보였고, 1998년, 2000년, 2005년의 경우 기존의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정부의 수도권 5개 신도시 계획의 영향으로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학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부천시, 안양시, 고양시, 성남시 등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9) 중·고교생수는 학교소재지를 기반으로 집계된 수치이고, 15~19세 인구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집계된 수치이다. 교육통계에서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의 중·고등학생 수는 1999년부터 데이터베이스화 제공되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는 교육연령층 15~19세의 거주인구 자료를 통해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였다.

[그림 5] 수도권 15~19세 거주인구 및 중·고등학생의 지역별 분포 추이



주) 2014년도는 15~19세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 자료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서울·인천·경기도 교육청, 「교육통계연보」

2010년, 2014년에는 강남구, 송파구, 노원구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밀집 분포를 보이고 있고 기존의 수도권 신도시지역 및 주변외곽으로 주거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평택시 지역의 15~19세 인구분포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 중·고등학생 수는 2000년 약 174만 명에서 2010년 약 188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14년 기준 약 170만 명이 분포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00년의 경우 노원구, 송파구, 강남구, 양천구, 성남시 등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분포가 나타났고, 2005년과 2010년에는 이들 지역 외에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등의 서울 외곽지역이 두각을 나타냈다. 2014년에는 기존의 수도권 신도시지역으로 밀집 분포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졌고 외곽으로 주거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지역의 중·고등학생 분포가 증가하였다.

요컨대 지난 24년 동안 사교육 수요의 주요 연령층인 15~19세의 거주인구 분포와 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분포 추이를 종합해보면 기존의 서울지역 대단위 아파트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점차 외곽으로 주거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함께 확산하는 분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3) 교육환경

본 연구에서는 교육환경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한정하고 학교로 대표되는 공교육 환경과 사설학원으로 대표되는 사교육 환경을 중심으로 그 특징 및 공간상에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였다.

#### (1) 공교육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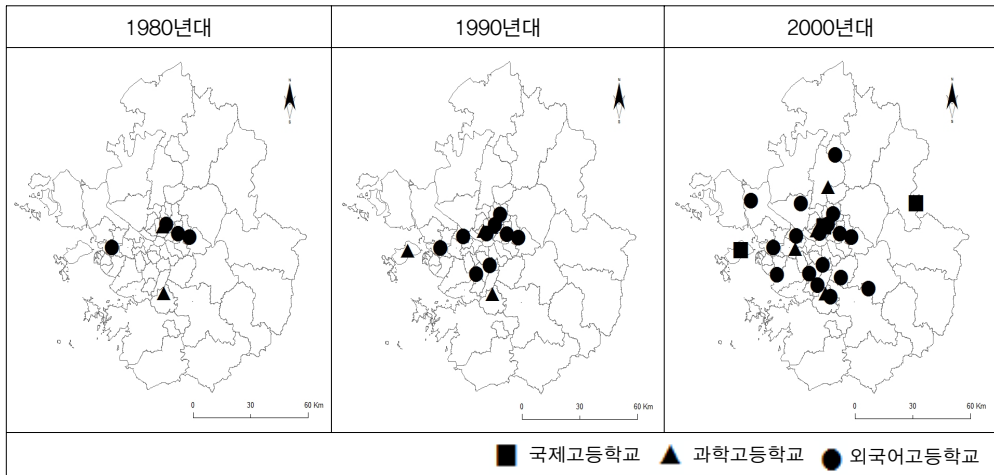
시장 기능에 따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분포하는 사교육 시설과 달리 공교육 시설은 공익과 형평성 추구를 목적으로 지역별로 적절히 안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구성되어 온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다소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는 용어는 1973년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이 논의되면서 등장하였는데 이 당시만 해도 평준화제도 아래 독자적인 학생 선발권을 갖는 학교들의 이점이 부각



된다는 특혜시비로 인해 특목고는 실업계로만 한정하였다. 특목고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 영재육성을 위해 과학계열이 특목고 범주에 포함되면서부터다. 평준화 도입 이후 소위 말하는 ‘일류학교’가 사라지자 영재교육 문제가 표면화되었고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생한 것이다. 과학계열 특목고에 이어 1992년에는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고등학교의 특목고 지정이 이루어졌다(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그런데 고교평준화제도의 보완책으로 등장한 특목고는 명문대 입시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과 함께 사교육 증가의 주범이 되어왔다. [그림 6]을 보면, 1980년대 수도권지역의 특목고<sup>10)</sup>는 과학고 2개, 외국어고 4개로 총 6개의 학교가 분포하고 있었고 1990년대 들어 과학고 2개, 외국어고 5개가 추가로 설립되어 총 13개의 학교가 분포하고 있었다. 1998년 국제고가 특목고에 포함되었고 2001년에는 교육부 장관의 특수목적고 지정·고시권이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되면서 특목고, 특히 외국어고의 설립이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기준 전국의 외국어고는 총 33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 중 수도권지역은 절반인 17개가 분포한다. 경기도는 ‘특목고 교육벨트’ 조성 계획(2004년)을 내세우는 등 외국어고 설립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그림 6] 수도권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역별 분포 추이



자료: 교육부(2010)

10) 본 연구에서 다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범위는 입시제도와 관련이 깊은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로 한정하였다.

출산을 저하로 수도권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지만 강남지역은 교육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강남 8학군 학교진학을 위한 전입(전학)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초등학교는 학교마다 학생 수 제한이 없어 주소지를 옮기면 전학이 가능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이사를 하더라도 해당 지역학교에 결원이 생겨야만 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의 전학이 두드러지고 있다(세계일보, 2005.02.18). 다음 [표 3]은 초등학교 5학년생이 6학년이 되었을 때의 학생 수 및 학급 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강남 3구, 양천구가 증가율 상위지역으로 학생 수 및 학급 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당시 5학년 재학생이 6학년이 되는 2014년도에 강남구의 6학년 재학생 수는 7.9% 증가하였고 학급 수도 7.6% 증가하였다. 서초구도 각각 4.7%, 7.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남 8학군과 양천구와 같은 소위 ‘교육특구’인 지역으로의 교육환경을 따라 많은 5학년 학생들이 전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 및 학급 수 변화율 상위지역(2013~2014년)

순위	행정구	6학년생 증감률(%)	행정구	6학년 학급 증감률(%)
1	강남구	7.9	서초구	7.9
2	서초구	4.7	강남구	7.6
3	양천구	3.0	송파구	5.6
4	송파구	1.2	종로구	4.2
5	종로구	1.1	강서구	3.8

자료: 서울시 교육청, 「교육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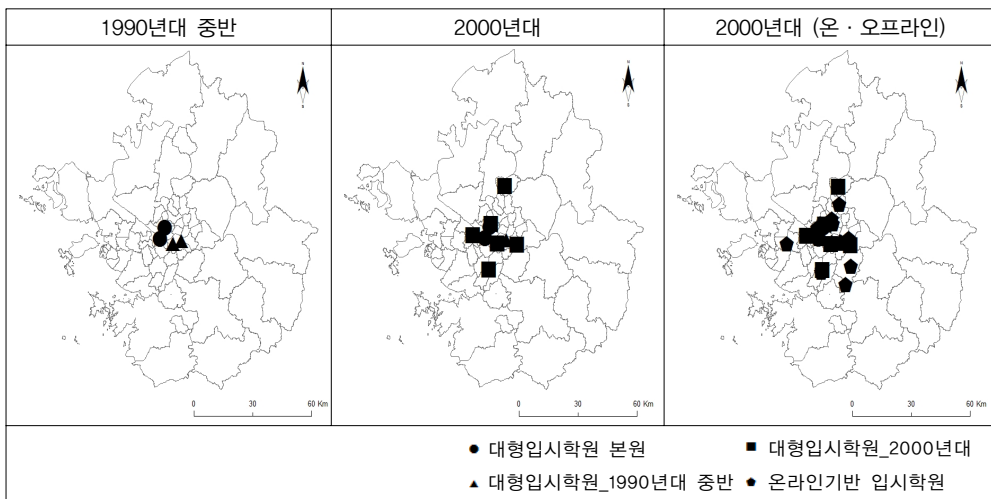
## (2) 사교육 환경

1987년 입시학원 설립이 완화되면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설립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까지 사교육 수요는 현재와 달리 성적 하위권의 일부학생이나 상위권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사교육 환경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남 지역 중심의 소규모 보습학원과 재수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도심 중심의 대형입시학원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1990년대 중·후반 들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형입시학원들이 차차 들어섰고 우수한 강사 확보를 통해 학원의 거점화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외환위기 당시 많은 고학력 실업자들이 학원가로 유입되었는데 이들의 학습 노하우는 수능의

통합·논술형 문제에 대한 교습 방법의 혁신이 되었다. 이전까지는 수강선택에 있어 학원브랜드 파워가 강했지만 이 시기부터는 유명한 강사의 강좌 여부가 학원의 인지도를 결정짓게 되었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일명 ‘스타강사’도 등장하였다. 스타강사는 사무실 및 직원, 보조강사 등을 두며 교재 및 광고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면담조사, 2011.04.13)<sup>11)</sup>.

앞서 언급했듯이 1990년대 초까지 기존의 대형입시학원들은 강북 도심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사교육 수요가 집중되었고 이에 강북 중심의 대형입시학원들도 강남지역에 본원 지역학원을 설립해 지역별 거점화를 시도하였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명성을 쌓아온 온라인기반 학원들은 그들의 브랜드 인지도와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교육시장을 공략하였다. 이들은 강남지역에 오프라인 본원을 세우고 강북 도심, 새로운 사교육 수요지인 서울 서북부지역 및 수도권 외곽의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분포하였다(그림 7). 이로써 강남지역은 8학군의 우수한 공교육 환경과 더불어 사교육 여건 및 환경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특히 대치동은 강남지역 내에서도 입시관련 학원들이 집중 분포하는 대표적인 사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림 7] 대형입시학원의 공간적 집중 및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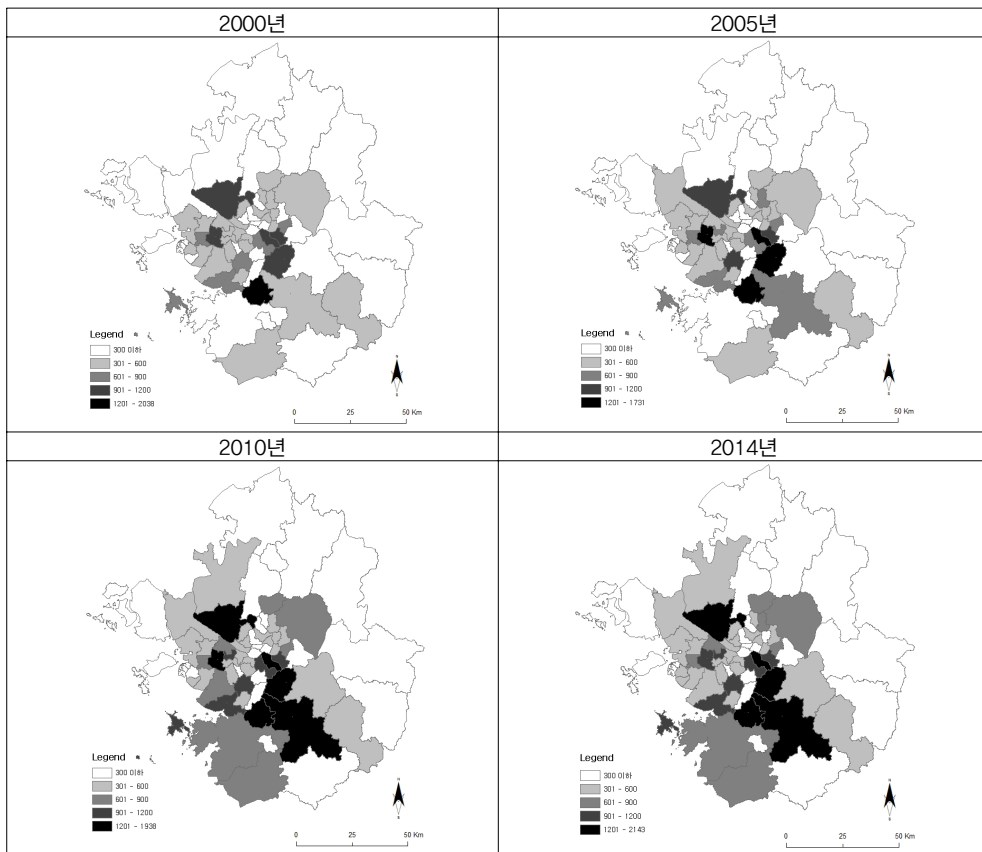


주) D, J, M, V, E, S 등 주요 대형입시학원의 분포도임.

11) 과거(2000년대 초중반), 대형입시학원 스타강사(과학)를 섭외, 인터뷰조사 한 내용의 일부이다.

다음 [그림 8]은 수도권지역 사설학원의 분포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수도권지역에 분포하는 사설학원은 총 2000년 26,506개에서 2005년 28,850개, 2010년 34,238개, 2014년 34,912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사설학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2000년의 경우 강남구, 송파구,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등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5년에는 이들 지역 외에 추가로 고양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2010년과 2014년은 기존에 두드러진 분포를 보인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더욱 밀집하는 경향이 짙어졌고<sup>12)</sup>, 점차 외곽으로 주거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사설학원의 분포도 함께 확산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8] 수도권 사설학원의 지역별 분포 추이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2) 특히 강남구의 사설학원은 총 2,143개(14)로 수도권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대비 16.8%(1,834개) 증가한 수치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입시전형의 다양화, 실업률의 장기화, 자기계발 욕구 증가 등으로 인해 사교육 수요가 다양해졌고 아울러 사교육서비스도 영역과 대상에 맞춰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다음 [표 4]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사설학원의 계열 분류 기준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사교육서비스의 다양화를 반영해 기존의 분류 기준이 점차 갈수록 세분화되는 것을 보여 준다<sup>13)</sup>. 2003년까지 사설학원의 분류는 직업기술, 문리, 경영실무, 예능의 총 4개 분야였고 2004년부터 새롭게 국제실무 분야가 생성되었다. 문리분야는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인문사회 분야로 세분화되면서 분류기준은 총 6개의 분야로 확장되었다. 사교육 참여 연령층이 성인 및 학령기 이전의 아동까지 확대되자 2009년부터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두 종류로 연령 대상이 구분되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에는 기존의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분야에 특수교육, 기타 분야가 추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학원에는 기존의 직업기술, 국제화, 인문사회 분야에 기예 분야가 추가되었다. 특히 영어교육 열풍이 전 연령층으로 가속화되면서 두 종류의 연령층 학원 분류에 국제화 분야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박소현·이금숙, 2014).

[표 4] 사설학원 계열 분류 기준의 세분화

2004년 이전	2004~2008년	2008년 이후			
분야	분야	종류	분야	종류	분야
직업기술	직업기술	학교교과 교습학원	특수교육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경영실무	경영실무		기타		기예
	예능		예능		
예능	국제실무		국제화		국제화
	인문사회		입시검정 및 보습		
문리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인문사회			

주)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분야는 제외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사설학원 계열 분류 기준」

이 중 2009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기타 분야의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2010년

13) 앞서 [표 1]에서도 보았듯이, 통계청에서도 교육서비스업 중 사교육서비스업 분류 체계의 개정을 통해 사교육 서비스 관련 산업 규모의 성장을 반영하였다.

기준 수도권지역의 기타 분야 학원은 강남구가 153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국악, 무용, 연극, 모델, 실용음악 등 기예 분야 학원도 강남구가 45개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표 5].

[표 5] 기타 및 기예 분야 학원의 분포

순위	행정구	기타 분야	행정구	기예 분야
1	강남구	153	강남구	45
2	성남시	74	마포구	30
3	서초구	70	서초구	21
4	수원시	67	용인시	21
5	고양시	59	계양구	20
6	강동구	58	수원시	20
7	송파구	57	연수구	17
8	광명시	52	종로구	15
9	부천시	51	부천시	15
10	파주시	50	성북구	12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10)」

통계청에서도 사교육서비스의 다양화 흐름을 반영해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 에 따라 2006년부터 교육지원 서비스업 부문에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과 기타 교육지 원 서비스업의 항목을 독립적으로 새롭게 추가하여 집계하기 시작하였다([표 6])<sup>14)</sup>. 조사가 시행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의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은 지난 7년간 사업체 수 97.6%, 종사자수 164.1%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도 동 기간 사업체수 237.3%, 종사자수 181.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전국 대비 수도권 지역 교육지원 서비스업의 사업체수와 관련 종사자수의 구성비를 보면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은 사업체수 64.0%, 관련 종사자수 64.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사업체수 61.7%, 관련 종사자수 73.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육지원 서비스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모두 전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지역에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중이 심함을 알 수 있다<sup>15)</sup>.

14)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은 교육에 관한 상담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으로 교육상담, 학습향상 클리닉, 교육 컨설팅 등이 이에 포함되며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기타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 유학알선 및 상담 서비스, 어학연수지원 서비스, 체험학습대행 등이 포함 된다(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

[표 6] 교육지원 서비스업의 연도별 증감률 추이

	교육지원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2006-2007년	25.9	43.2	9.8	16.6
2007-2008년	16.6	1.8	0.1	17.9
2008-2009년	10.9	8.6	3.1	6.8
2009-2010년	7.9	-8.7	6.4	17.9
2010-2011년	21.4	19.8	15.1	23.2
2011-2012년	23.4	22.8	20.0	14.7
2012-2013년	28.2	24.2	18.7	14.9
2006-2013년	97.6	237.3	164.1	181.3
수도권 구성비(2013년)	64.0	64.4	61.7	73.0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요컨대 사교육의 영역 및 대상에 따라 사교육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사설학원의 종류 및 교육관련 서비스의 다양화가 나타났지만 이러한 다양화된 사교육서비스의 공급 환경은 여전히 특정(강남)지역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도 사교육서비스의 제공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대학에서 운영하는 각종 캠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라 포트폴리오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도 나타났다. 3주에 1,700만 원짜리 영어캠프(매일경제, 2011.7.4), 공부관리전담집사(동아일보, 2010.10.12) 등 사교육 형태의 고급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4. 수도권지역 사교육 산업의 성장과 공간적 변화의 관계

수도권지역 사교육 산업의 성장과 공간적 변화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검증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고<sup>15)</sup>, 성장요인별 변수간의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사교육의 공급변

15)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체는 강남구가 106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서초구(66개)로 나타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체도 서초구(223개), 강남구(220개)와 더불어 종로구(123개)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수도권 시·군·구별 사설학원, 사교육의 주요 수요연령층인 15~19세 인구, 중·고등학생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14년간의 증감률 값을 변수로 투입하여 세 변수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설학원과 중·고등학생의 분포는 상관계수값 .77( $p < 0.01$ ), 15~19세 인구 분포는 상관계수값 .316( $p < 0.01$ )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수로 사설학원 수, 수요변수로 15~19세 거주인구 및 중·고등학생수를 투입하였다<sup>17)</sup>.

다음 [그림 9]는 2000년과 2014년 두 시점의 사설학원의 지역별 분포와 15~19세 거주 인구 및 중·고등학생의 지역별 분포를 교차 분석한 그래프로 좌표평면상에 수도권 각 지역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기준점은 연도 간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값을 적용하였는데 각 축의 평균값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2000년의 경우 사설학원 수의 평균값은 402개이고 15-19세 거주인구, 중·고등학생수의 평균은 각각 24,822명, 26,419명이다. 2014년의 사설학원수의 평균은 529개이며 15~19세 거주인구, 중·고등학생수의 평균은 각각 24,645명, 25,724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2000년과 2014년, 두 연도 간 비교를 위하여 y축 사설학원은 460개, x축 15~19세 인구 24,000명, 중·고등학생 26,000명을 기준점으로 놓고 지역별 위치를 표시하였다.

먼저, 수도권 사설학원의 지역별 분포와 중·고등학생 분포의 교차비교 결과를 보면 2000년 결정계수 값은 .79에서 2014년 .82로 중·고등학생의 분포와 사설학원의 분포는 더욱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되었다. 다음으로 사설학원의 지역별 분포와 연령층 15-19세 거주인구 분포를 교차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00년 결정계수 값은 .51으로 약 51%의 설명력을 보였고 14년이 지난 2014년 결정계수 값은 .83으로 83%의 높은 설명력을 보여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 14년간 수도권지역에 분포하는 사설학원과 15~19세 거주인구, 중·고등학생의 분포는 더욱 밀접한 상호관계로 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학령기 인구감소 등 사교육 수요의 절대적 수는 감소하였지만 사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분포에서 나타나는 상호연관성은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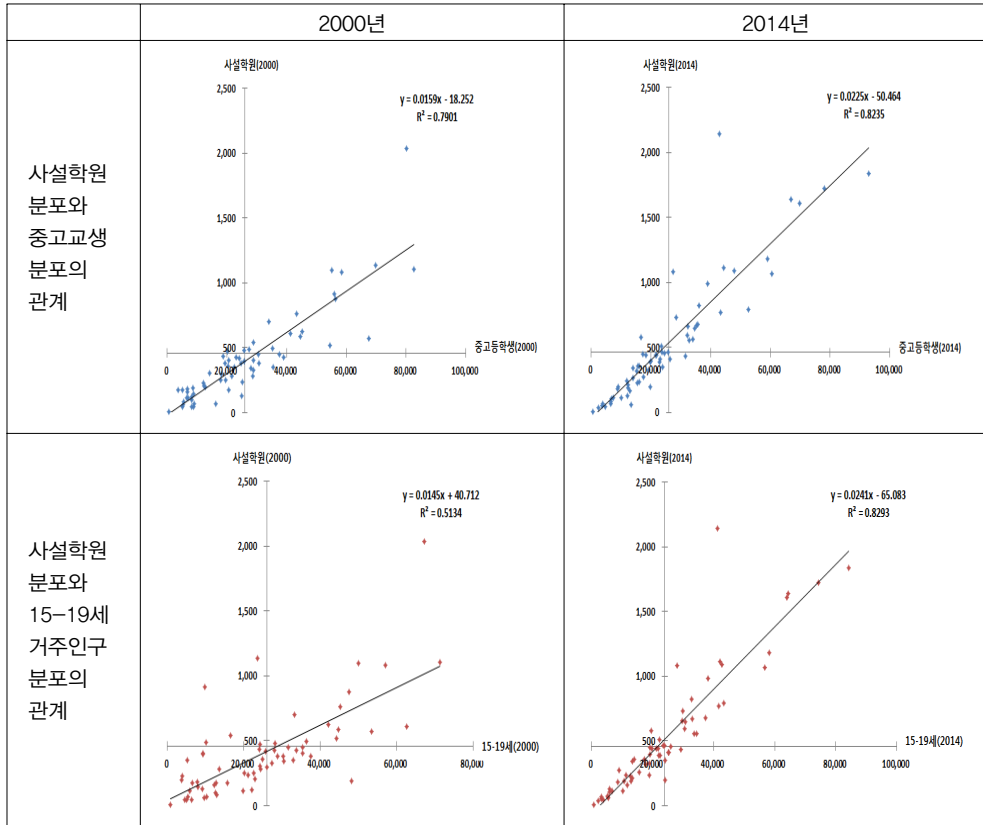
기준축을 토대로 2000년과 2014년 지역별 분포에 대하여 영역 구분할 경우, 사설학원과 중고등학생의 분포가 모두 높은 영역(제1사분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17개(‘00)에서 22개(‘14)로 확산되었고, 사설학원과 15-19세 인구 분포가 모두 높은 영역(제1사분면)에 해당하는 지역도 15개(‘00)에서 22개(‘14)로 확산되었다. 추가 확산된 지역은 인천시 남동구, 서구와 경기도 용인시, 시흥시, 화성시, 남양주시 등이다. 이 가운데 사설학원과 중고등학생, 15~19세 인구 분포가 모두 낮은 영역(제3사분면)에서 모두 높은 영역(제1사분면)

17) 사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는 사회경제적 지표가 다양하나,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투입변수를 한정하였다.



으로 전환된 형태를 보인 지역은 인천시 서구, 경기도 시흥시, 화성시, 남양주시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거지 확장과 관련이 깊다. 그 외, 인천시 남동구는 사설학원 분포는 낮고 중고등학생, 15~19세 인구 분포가 높은 영역(제4사분면)에서 모두 높은 영역(제1사분면)으로 변화한 형태로 사교육 수요에 사교육 공급이 반응한 결과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sup>18)</sup>.

[그림 9] 수도권 사설학원, 15~19세 거주인구, 중·고등학생 분포의 관계 형상



지금까지 본 연구는 사교육의 수요와 공급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여 년간 사교육 산업의 성장을 정부의 사교육 관련 교육정책, 교육수요,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상의 변화와 그 특징을 함께 보았다. 이를 시기별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7].

18) 인천시 남동구에 분포하는 사설학원은 14년('00~'14) 동안 24.2% 증가하였고, 중·고등학생 7.4%, 15~19세 인구 6.4%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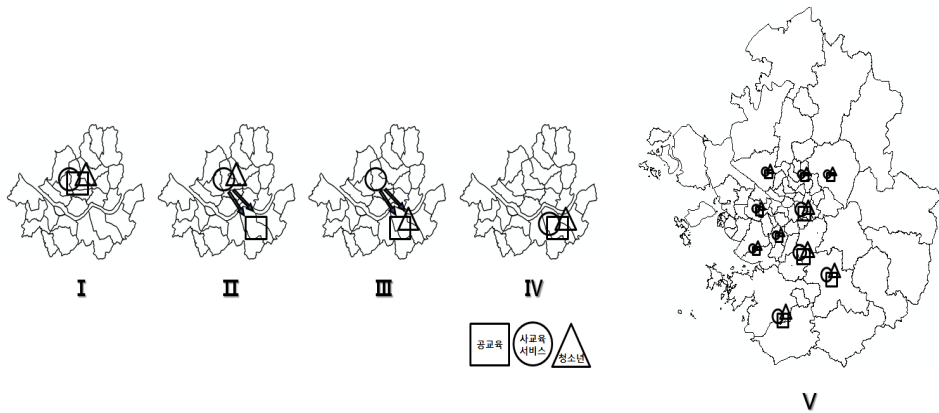
[표 7] 시기별 사교육 산업의 성장 내용과 공간적 특징

	1990년대 초반	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이후
교육 정책	사교육의 부분적 수정·보완		사교육의 전면 허용 (공교육의 보완)	
	학력고사	수학능력평가	수학능력평가	입시전형의 다양화
공교육 환경	암기위주의 교육	통합·논술형 지향	특목고 설립 완화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등
	학군 내 고교 배정제도(학군 수혜지역)			학교 선택권 확대
사교육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남중심의 소규모 보습학원</li> <li>강북중심의 대형입시학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남지역 대형입시학원 등장</li> <li>스타강사의 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입시학원의 지역별 거점화</li> <li>온라인강의 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역의 다양화 (비교과)</li> <li>대상의 다양화 (성인 및 아동)</li> <li>온라인교육학원의 오프라인 진출</li> </ul>
사교육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남 및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학령인구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시제도 변화로 사교육 수요 증가</li> <li>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학령인구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목고 대비 사교육 수요 증가</li> <li>사교육 수요의 전국적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시전형의 다양화로 사교육 수요의 다양화</li> </ul>

서울의 도심지인 종로구와 중구 일대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서 많은 중·고등학교와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시설이 집중되어 있었다(I). 1970년대 들어 강남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도심의 인구분산 정책이 추진되면서 많은 고등학교와 입시학원들이 4대문 밖으로 이전되었는데 이때 강북 도심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대거 강남으로 이전하였다(II). 서울시의 도심인구 분산 정책으로 강남지역은 새로운 중산층 주거지역이 되었고 학교, 학원 등 교육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도심에서 이전한 명문 고등학교와 신흥고등학교의 설립으로 인해 새로운 공교육 환경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이러한 변화는 사교육 환경의 형성 및 재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고교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군 내 고교 배정제도로 인해 강남지역 학생들만 강남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되자 강남으로 이전한 명문 고등학교로의 입학 을 위한 위장전입이 줄을 잇는 등 우수한 공교육 환경을 쫓아 교육연령층이 강남지역으로 대거 유입되었다(III). 한편 명문 고등학교의 이전과 함께 대형입시학원들도 4대문 밖으로 이전 조치되었는데 도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지역으로 다수 이전하였으나 차후 사교육 환경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재편성되었다(IV). 1990년대 사교육의 부분적

허용, 2000년 과외금지 위헌 판결로 인한 사교육의 완전 허용으로 사교육 수요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수도권신도시 개발 등과 맞물려 주거지역이 서울외곽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형입시학원의 지역별 거점화가 추진되었다(V). 이러한 일련의 흐름([그림 10])은 사교육 관련 교육정책에 따라 공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변화한 공교육 환경이 양호한 지역일수록 교육 수요가 집중되며 이를 쫓아 사교육서비스 공급이 재편되면서 사교육 환경도 양호한 지역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우수한 교육환경과 사교육 수요의 초과는 차후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다시 영향을 끼쳤다.

[그림 10] 교육공간의 변화



##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사교육의 수요와 공급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여 년 간 사교육 산업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공간의 변화와 그 특징을 교육정책, 교육 수요와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은 사교육의 전면 허용에 따라 공교육의 보완적 관점을 추구해 왔다. 입시전형의 다양화, 특목고 설립 및 학원 설립의 완화, 학교 선택권의 확대 등으로 사교육서비스의 영역 및 대상의 다양화가 나타났고 사교육 환경도 다양한 공급구조로 재편성되어 왔다. 그러나 사교육 산업의 성장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교육의 보편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지역으로 사교육 산업이 집중 분포하며 심화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입시전형과 사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사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여건과 환경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과거 우수한 교육공간의 척도가 학교(명문고)의 여부였다면 현재는 강남 8학군 등 지역성의 여부가 우수한 교육공간의 척도가 되었다. 다시 말해, 학교의 차이에서 지역의 차이로 변질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공간(지역)의 차이는 예컨대 서울의 강북과 강남, 수도권과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온라인 교육공간과 오프라인 교육공간 등 공간과 공간간의 또는 공간 내부에서도 또 다른 공간적 분리를 강화시켜 공간적 격차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사교육(비) 자체의 문제에만 주력할 것이 아닌 게, 사교육이 집중되는 공간의 형성이 교육공간의 분리라는 현상을 가져오고 이는 곧, 교육공간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사교육 문제와 공간 문제를 결합하려는 접근이 필요하고 지역성에 기초한 교육공간의 구조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광역학군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지역이 갖고 있는 교육공간의 특수성을 점유하기 위한 전입(전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결국 지역을 물리적 공간으로 인식하여 물리적 공간의 분리를 해소하는 것으로 사교육 문제를 접근한 교육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공간성, 더 나아가 교육의 사회경제적 공간성 연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다수 사교육 관련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공간적 측면에서 사교육을 서비스산업으로 접근하여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지역)적 변화를 추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후 사교육 관련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사교육 관련 공식데이터의 부족 및 조사기관별 분류기준의 차이와 분류방식의 잦은 변화로 인한 시기별, 유형별 비교 분석의 어려움은 보다 정밀한 분석결과 도출에 한계로 남았다. 실증분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집계 수준의 자료만을 이용하였는데 우리나라 사교육의 공급과 수요에 작용하는 특유의 사회문화적 특성(높은 교육열, 학벌주의 등)을 배제한 점은 추후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 외, 공식 데이터에 집계되지 않는 사교육 유형에 대한 질적 접근 및 사교육 공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네트워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 참고문헌 □

- 강일국(2010). 사교육정책의 역사와 의미. *교육비평*, 27, 70-93.
- 강창동(2007). 한국 대학입시제도의 사회사적 변천과 특징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8, 83-113.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2007). 대한민국 교육 40년. 서울: 한스미디어.
- 김경민 · 이양원(2007). 사교육시장 및 교육성과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2004년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기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55, 239-251.
- 김미숙 · 강영혜 · 박소영 · 황여정 · 이희숙(2006). 입시산업의 규모 및 추이분석: 대입정책과 사교육의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양분 · 양수경(2011). 사교육비 추이와 규모 예측.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영(2008). 우리나라 가구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과 사교육 정책에 대한 함의. *교육재정 경제연구*, 17(3), 1-28.
- 김형미 · 주경식(2011). 경기도 남부지역 학생이동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6), 679-697.
- 동아일보(2010). [신나는 공부] “엄마 대신 이모가 다 해줄게 공부 관리전담 집사, 신종직업 신이모 등장”, 2010.10.12.
- 매일경제(2011). “3주에 1700만 원짜리 영어캠프라고?”, 2011.7.4
- 박소현 · 이금숙(2011). 사교육 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 수도권지역 사설학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1), 33-51.
- 박소현 · 이금숙(2014).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성인 대상 사교육 시장의 성장과 공간적 함의.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2), 402-419.
- 세계일보(2005). “8학년 배정받자” 전학 치맛바람 고학년 “초만원”, 2005.2.18.
- 손준중(2004). 교육공간으로서 강남(江南) 읽기. *교육사회학연구*, 14(3), 107-131.
- 손충기(2003). 한국의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변천과정 및 발전방향 탐색. *교육연구* (22), 17-42.
- 양정호(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121-145.
- 엄근용 · 윤충한 · 임덕호(2006). 교육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24(4), 99-115.
- 오만숙 · 김진희(2011).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통계 분석. *응용통계연구*, 24(1), 193-206.
- 유한구(2006). 사교육비 지출 구조의 분석. 직업과 인력개발, 172-185.
- 윤정일(1997). 제4장 현대적 교육체제의 형성과 발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 265-336.
- 이수정(2011). 대입제도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1), 127-147.
- 이인자 · 한세희 · 이희선(2011).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179-212.

- 이정국·김주환(2007). 사교육환경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상업교육연구*, 18, 135-152.
- 이종재·장효민(2008). 사교육 대책의 유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9(4), 173-200.
- 이화정·이상일·조대현(2013). 거주지 이동을 통한 학교 선택의 공간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초등학교의 전학 양상을 사례로 한 시론적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48(6), 897-913.
- 조선일보(2011). “입학사정관 전형 전국 125개 대학서 3만 8169명 모집”, 2011.7.25
- 진영남·손재영(2005). 교육환경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 아파트시장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13(3), 125-148.
- 주경식·김경숙(2004). 서울시 학원의 공간적 분포 패턴 변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3), 363-378.
- 천세영(1997). 사교육과 과외문제의 시장 이론적 검토. *교육재정경제연구*, 6(3), 63-112.
- 최상근·김양분·유한구·김현진·이희숙(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열·권연화(2004). 위계선형모델을 이용한 교육환경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계획*, 39(6), 71-82.
- 황규성(2013). 한국 사교육 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정치적 분석: 공급자의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0(2), 233-260.
- 홍진환·최인혁·임성준(2009). 대기업으로 도약하는 한국의 영어 학원: 영어 학원 산업의 환경 변화. *경영교육연구*, 13(1), 33-54.
- Aurini, J.(2004). Educational Entrepreneurialism in the Private Tutoring Industry: Balancing Profitability with the Humanistic Face of Schooling, *The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41(4), 475-492.
- Aurini, J. & Davies, S.(2004) The Transformation of Private Tutoring: Education in a Franchise Form, *The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9(3), 419-438.
- Bray, M. & Kwok, P.(2003) Demand for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conceptual considerations and socio-economic patterns in Hong Kong.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2(6), 611-620.
- Byun, S.(2010). Does policy matter in shadow education spending? Revisiting the effects of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in South Korea.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1(1), 83-96.
- Clapp, J, M., Nanda, A. & Ross, S, L.(2008) Which school attributes matter? The influence of school district performance and demographic composition on property valu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3(2), 451-466.
- Davies, S.(2004) School Choice by Default? Understanding the Demand for Private Tutoring in Canada,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10(3), 233-255.

- Dawson, W.(2010) Private tutoring and mass schooling in East Asia: reflections of inequality in Japan, South Korea, and Cambodia,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1(1)*, 14-24.
- Dierkes J.(2010). Teaching in the shadow: operators of small shadow education institutions in Japan,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1(1)*, 25-35.
- Downes, T, A. & Zabel, J, E.(2002). The impact of school characteristics on house prices : Chicago 1987-1991. *Journal of Urban Economics*, *52(1)*, 1-25.
- Ireson, J.(2004). Private Tutoring: how prevalent and effective is it?. *London Review of Education*, *2(2)*, 109-122.
- Kwok, P. L.(2010). Demand intensity, market parameters and policy responses towards demand and supply of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in China,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1(1)*, 49-58.
- Mischo, C. & Haag, L.(2002). Expansion and effectiveness of private tutoring,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7(3)*, 263-274.
- Mori, I. & Baker, D.(2010). The origin of universal shadow education: What the supplemental education phenomenon tells us about the postmodern institution of education,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1(1)*, 36-48.
- Tansel, A. & Bircan, F.(2006). Demand for education in Turkey: A tobit analysis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5(3)*, 303-313.
- Ventura, A & Jang S.(2010). Private tutoring through the internet: globalization and offshoring,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1(1)*, 59-68.

# Growth Mechanism of Private Tutoring Industries and The Spatial Impacts 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the Metropolitan Seoul Area: Focused on The Interactions among Private Tutoring Industries, Educational Demand and Government Policies for Education

So Hyun Park\* · Keumsook Le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rowth mechanism of private tutoring industries and the spatial transition process of educational environment in the Metropolitan Seoul Area.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ir interactions among private tutoring industries, educational demand, and government education policies. For the purpose, we review the growth trends of private tutoring industries in first, and then analyze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private tutoring industries and youth population which constitute their demand during the last two decades. The growth mechanism of private tutoring industries is verified by considering dynamic relationship among them comprehensively. We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quantitative and locational changes in the private tutoring industries and the government policies for education, formal school education, and residential choice of families having children. The growth of private tutoring industries has been 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 government policies for education and the qualitative degradation of formal school education as well as the changes in the educational demand according

---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sohyunpk5@hanmail.net)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kslee@sungshin.ac.kr)



to the income level increase and competitive global economic situation. The locations of private tutoring industries have been determined by the locations of formal schools and youth population in the beginning, while their locations have been attracted to the families having children in the later. The trend instigates the agglomeration of the private tutoring industries into a few places with the diversification of private tutoring industries, These places obtain prestige for private tutoring environment, and thus getting more locational attraction.

**Key Words:** private tutoring industries, growth mechanism, governmental policies for education, educational demand, educational environment, spatial agglomeration

◆ 2015.04.30. 접수 / 2015.06.03. 1차 수정 / 2015.06.16. 게재 확정